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6주간

제6주간: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들어가는 말

심리학과 심리요법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들에 강박, 고착, 중독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실패와 잘못들에 성전(聖傳)이 붙인 이름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교만, 탐욕, 색욕, 질투, 분노, 탐식, 나태 등 칠죄종 목록이지요.

가장 일찍이는 400년 경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은수자들과 수도승들로부터 수집하였습니다. 500년대 후반에 교황 대 그레고리오가 지금의 목록을 완성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목록을 철학적으로 설명했고, 단테는 연옥의 문들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프리 초서는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칠죄종을 다루면서 이 죄들이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죄들의 우두머리요 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속 문화에서 미국인들은 폭식하는 사람을 강박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노를 따라서 탐식이라고 부르죠. 미국인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훔쳐 내는 것을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초서를 따라서 탐욕이라고 하죠.

그런 식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아관념이 큰 사람을 자부심이 강하다고 하는데, 성 토마스는 교만하다고 했지요. 포르노를 보는 사람을 미국인들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테는 색욕의 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옷이나 사치품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을 공격적, 경쟁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영적으로 질투심이 많다고 부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이 칠죄종 가운데 여섯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인 나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이는 특징적인 실패이죠.

물론 나태는 즉시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늦게 일어나고, 이부자리도 정리하지 않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죽치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일찌감치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고, 아침에 책상 위에 있던 서류가 퇴근할 때도 그대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나태는 단순한 게으름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게으름은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죠.

성 토마스가 보기에 나태는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셨

고 지금도 주시는 구체적인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무능입니다.

네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6일 12시간씩 일하는 야심찬 일중독자입니다. 그는 일과 돈을 높이 평가하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더 좋은 선물인 부인과 아이들을 오히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선물을 오히려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다반사이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의 병은 나태이고, 그 증상은 일중독입니다.

한 십대 소녀가 키보드를 잘 다룹니다. 타이핑, 연결, 터치 등이 좋습니다. 그런데 뛰어나게 잘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여 연습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런 완전함에 대한 집착—전문가는 이것을 완전벽이라고 부릅니다—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인 키보드 재능을 거부하는 한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나태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스마트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죠. 그녀는 틀림없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탁월한 지성의 선물을 무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소홀한 습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태입니다.

이번 피정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도할 부분을 읽고 기도에 임하고 노력하면서도 자신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희망 그리고 시간을 주신 성령의 선물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태입니다.

나태는 여러 죄스러운 덩굴의 뿌리입니다. 게으름, 일중독, 슬픔, 낙심, 완전벽, 재능을 묵혀 두는 것, 영적인 선물을 무시하는 것.

모든 죄의 모든 뿌리가 그러하듯이 나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데에서 자랍니다. 당신 자신과 생활을 성찰하려 할 때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을 때에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항상 늘 하느님이 당신에게 부어 주시는 구체적인 선물들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당신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주변 세계에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도 도움말

당신이 안전하고 우리의 창조주이며 주님이신 하느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에서 당신의 기도가 시작되고 심화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 꾸준히 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다라고 느끼면 자라고 성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 면에서 진리이고, 영적인 생활 면에서도 참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혼돈과 내면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존중받는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세요. 첫째, 어린애에게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조용히 성령께 마음과 정신을 단순하게 여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방에 조용히 찾아가서 하느님께서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게 해 주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겪는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도 견디지 못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협력한다면, 하느님은 당신 사랑을 받아들일 강력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기도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옴~’하고 허밍humming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계시 안에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선포된 계시의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지도자의 증언에서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나 마더 테레사의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를 더 가까이 합니다. 성인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들에 의해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지하게 기도

하고 싶다면 그분들을 찾으세요.

셋째, 기도 패턴이 정립되고 나면 나태의 유혹이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가장 분명하고 흔한 체험은 스스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태는 하느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할 장소와 시간을 찾았고, 기도하도록 성령의 감도를 받았는데, 당신이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당신이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유혹은 분주함의 길로 들어서서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말해서 하느님이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일종독처럼 기도하는 유혹입니다. 베드로 아루페 신부님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해결책은 기도하러 가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희망이 결합된 태도이며 사랑을 향해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피정을 하면서 당신은 기도 중에 낙심과 심지어 슬픔까지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방어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양심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도움은 그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신이 실망 상태에 있다면 양심성찰을 해보세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기도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이 경우라면 거울을 보고 완전벽의 유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보세요. 완벽하지는 않다고 해도 뭔가 하지 않았나요? 하느님이 결정하시게 하세요.

어떤 아이도 완벽한 부모를 갖지 못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키울 때에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찾음’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이들은 자라고 커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안전과 수용과 사랑을 찾아내지요.

하느님은 당신이 하느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책임을 질 수 없는 잘못은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과 일치communion하게 됩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자신의 죄와 잘못들을 볼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보다 그것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느님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마치 따뜻한 해 쪽으로 우리 얼굴을 돌리는 것과
같이. 하느님은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진실하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4. 청하세요: 내가 청하는 은총은 내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사랑의 용서와 자비를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시편 51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허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단상

죄의식, 거짓과 참

이번 주간에 당신은 죄스러움에 대해 기도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당신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것이지요.

당신의 죄의식은 그릇된 심리학적 죄의식과 다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1909년 미국을 방문할 때에 가져와 퍼졌다고 하지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사회적 전염병이 유아기 초기에 심어져서 뿌리를 뽑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마치 세상의 죄의 일부가 된 듯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거짓된 죄의식'은 '잘못되었다'는 심리학적 감각으로 발생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기대나 자신의 꿈으로 여겼던 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 실패와 좌절감뿐만 아니라 죄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만연한 부정적인 자아상의 근저에 이 그릇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그것을 내안의 죄와 쉽사리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진짜 죄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에게 “가거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하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한 그 죄의식을 확인하고 뉘우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죄의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상한 멜론이나 썩은 사과와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부과되는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하느님이 나를 짓밟겠 거라는 공포감이 아닙니다.

성숙한 제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하고 싶은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는 체험에서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며 나에게 가장 소

중한 분에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드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죄의식은 내가 잘못된 줄을 알면서 저지른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했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죄를 인정하면 뉘우치게 됩니다. 문자적, 신학적인 의미로 겸손하게 하느님께 돌아서는 것이지요. 다윗 왕처럼 “내가 죄를 지었소.” 하는 겁니다. 이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모든 성숙한 어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용서를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의식은 후회를 넘어섭니다. 후회는 주로 자신에 관한 일인데, 회개는 당신과 하느님에 관한 일이지요. 할 수 있는 한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리고 만일 사랑이 요구하면 속죄와 징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미숙할 때에는 단순합니다. 규칙대로 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사랑에 따라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고 인정하는 죄의식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심화시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는지 이해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에 제한을 두지 마라.”(마태 5,48 참조)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도 안 될 정도로 행복하며
항상 곤란에 처할 것이다.

- 마티 배브콧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이 의탁은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은 자신의 죄와 잘못들을 볼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보다 그것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하느님은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만과 겸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 청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8,9-14

예수님께서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단상

침착하고 평온하며 창조적인 두려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신경 써서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고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줄 때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하는 말만 하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어른들은 우리 삶에 대해 시간과 영원 안에서 책임이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익힙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지옥에 보내질 위험에 대비한 것과 같이 영원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분명했습니다.

이 현실을 숙고함에 있어서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꿈이나 번개를 무서워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하느님에게서 배웁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손수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신명 4,10) 처음에 도움이 되는 상징들은 풍량이나 지진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의로운 판관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은 침착

하고 평온하고 창조적입니다. 하느님이 위대하시니 침착합니다. 성부께 순명하여 마음에 온전한 평화를 발견하기에 평온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두려워하기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이것입니다.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네 이것을 배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인데, 350년에 신자들의 만장일치로 주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신앙 진리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유배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혼자 이면서 주교였던 이 성인은 교회의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에 대해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온전히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완전한 하느님 사랑은 그 두려움을 완성에 이르게 한다.”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성 힐라리오네 이 책임이 우리 주 하느님을 향하여 “그분의 권고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약속을 신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주님 두려움을 침착하고 평온하며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체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시편 34,10)음을 아는 깊은 위안을 가져옵니다.

메모

제6주간 3일차

나의 죄, 하나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용서는 사랑의 최종 형태이다.

- 라인홀트 니버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의 비유로 기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각각의 역할에 자신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당신이 바리사이라면 느낌이 어떨까요? 세리라면? 주님께 그 느낌을 말해 보세요.
2. 이번 주간에: 우리 죄와 잘못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예수님은 그 짐을 덜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햇살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죄에 대해 진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4. 청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8,9-14

예수님께서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다. 성전에서의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나는 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느님이 바리사이와 세리를 모두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느낌이 하다.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는 겸손을 이라 정의한다.

겸손한 사람은 을 한다.

‘일어서라’는 말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다.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소서.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하느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으로, 지금 느끼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말입니다.
2.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세요. 당신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까지 자신의 진짜 죄를 알아 갈 것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위선에 대해 강하게 반응합니다.
위선이란, 그렇다고 주장하는 모습과 실제 삶이 다른 것이지요.
하느님 앞에는 아무 것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을 잘 아십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4. 청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2,1-9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단상

죄에 이름을 붙이는 은총

머리가 많이 아프면 아스피린을 복용합니다. 열이 38도가 넘어가면 더 강력한 약을 복용하고, 40도가 넘으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진부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제자들은 이번 주간에 떠오르는 도덕적 실패들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여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스를 때에 중요도를 인식합니다.

교회는 수 세기 동안 두 단계의 죄, 즉 소죄와 대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세 단계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데에는 경미함, 심각함, 중대함의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부터 보자면, 우리가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잘 압니다. 간통, 은행 강도, 경쟁자의 명예 훼손 등을 저질렀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진짜 중대한 죄를 저질렀으면 최대한 빨리 화해 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슬픔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사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만나면 실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미한 죄라면 사랑이 아닌 행동을 별 생각 없이 하거나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답지만 건반 몇 개가 고장 난 피아노 같습니다. 간혹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청중들이 움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죄들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중한 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합니다. 걸인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거절한다,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며칠씩 그냥 지낸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경쟁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다, 배우자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포르노그래피에 빠진다, 폭음하고 폭식한다 등.

죄책감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런 죄들은 정기적인 양심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하느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상처를 치료하려고 애를 태우시는 하느님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메모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

-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2항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하느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으로, 지금 느끼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말입니다.
2.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세요.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서야 거룩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위선에 대해 강렬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위선이란, 그렇다고 주장하는 모습과 실제 삶이 다른 것이지요. 하느님 앞에는 아무 것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을 잘 아십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4. 청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2,1-9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내 삶에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찾아낸다면, 이다.

내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가? 나는 을 하느님께 속삭이고 싶다.

내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기로 하겠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때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낀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에게 이것은 를 의미한다.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선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려면
그 마음을 부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때가 있다.

- 폴틴 선 주교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자신을 성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분께 데려가시려는 사람으로 보도록 하세요.
2. 이번 주간에: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때로 너무 자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이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기 재산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5,11-32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단상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를 주제로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처음 5분간이 무음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3분간은 비틀거리면서 돌아와 아버지의 팔에 안기면서 끝이 납니다. 그 중간 30분은 난봉꾼 행각이었습니다.

영화는 우리 마음에 그 이야기의 핵심을 새겼습니다.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것이 할리우드가 본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 까다로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대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지요.

루카 복음 15장에 나온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양 떼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을 찾자 이웃을 불러 놓고 기쁨의 환성을 올립니다. 양 떼가 그대로 있고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아서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 패물 중에서 은전 한 닢을 잃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고 합니다. 패물과 함께 잃었던 은전을 찾은 기쁨에 취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당신의 자비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갖고 있

는 것과 함께 새로 찾아낸 것을 두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지금의 대화 상대인 죄스런 백성들이 무엇과 같은지를 확실히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는 게 좋지요.

방탕한 아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거두어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쓰레기 같은 일을 해야 했지요. 너무나 배가 고파지자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다른 아들의 죄는 거기에서 별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죄라고? 단지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루카 15,31)라고 일러 주는 말뜻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단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중대한 죄는 아니라고 해도, 사랑의 하느님에게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아낌없이 주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인내롭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니, 어쩌면 우리가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메모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청하는 은총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분명히 아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의 사랑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한 걸음 더

그리스도님은 내 영혼을 은총과 덕행의 보석들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나는 천사들이 보필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 성 아녜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성인들과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번 주간에: 자기 죄를 생각할 때에 때로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이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기 재산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15,11-32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

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내가 내 유산을 손에 쥐었다고 할 때는 이다.

나는 때에 (큰아들처럼) 즐기고 기뻐하기를 거부했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생각한 때는 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이에 대한 느낌은 하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러 다시 나왔다. 내 마음은 하고 싶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신다. 나는 아버지에게 라고 말씀드린다.

표지석

- 우리 제자들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교만, 탐욕, 탐식, 질투, 분노, 음욕, 나태의 심오한 실재가 있음을 인정한다.
-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워 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짓는지,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부정적인 자아상은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과 그분의 선물들을 실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 주님께 대한—침착하고 평온하고 창조적인—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 우리는 자신 안에 세리의 모습과 바리사이의 모습이 둘 다 있음을 인정한다.
- 어떤 죄는 중대하고 어떤 죄는 경미하다. 그리고 심각한 죄가 대부분이다.
- 그 이야기는 용서하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확실히 배웠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